



친애하는 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

2008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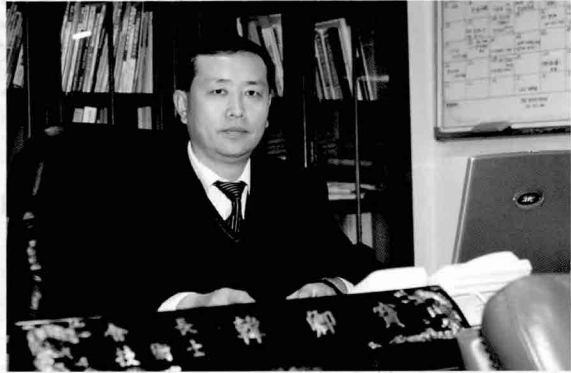
올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풍성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협회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경영실적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에 회장인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1985년 건설안전진단의 연구개발과 보급, 안전점검, 진단과 기술지도 및 교육 등을 통해 귀중한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건설안전기술자의 자질 향상 및 권익옹호를 통한 안전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건설산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협회 설립의 목적을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입니다.

건설안전의 시발점은 인간존중 정신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인간존중의 기본정신으로 무장되어야만 건설재해의 획기적 감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간 감소 추세에 있었던 건설재해는 요즘 들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방안의 안전관리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안전보건 활동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우리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개선의 차원을 넘어선 혁신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간 우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 방안에 힘입어 지난 11월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의해 '발주자 및 감리원 안전관리 실무편람'이 발간됨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자가 건설사업의 기획 및 실시단계에서부터 사고원인을 배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시행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발주자 중심의 안전 활동은 건설안전분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는 우리 협회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업무에 건설안전기술사 포함이 의무화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협회는 방재업무에도 참여하게 됨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고자 정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건설업은 국가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자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초고층, 초대형 빌딩의 성공적 완수는 우리의 자부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외형적 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진정한 자부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입니다. 국제경쟁시대에서 선진국의 앞선 기술과 앞선 마인드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기술과 정신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회의 양극화와 더불어 건설업계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단기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 품질, 환경, 보건 등 4대조건의 선진수준 달성이 없이는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없음을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 없는 품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진기술은 안전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해 갑시다.

2008년 새해 아침을 맞아 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장 한경보